

민족재생의 위대한 은인, 절세의 애국자

8월 15일,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일제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암흑의 역사를 끝장낸 이날이 있어 오늘의 강성한 조선이 있고 민족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나라의 독립을 일일천추 바라던 백의민족의 소망이 꿈 아닌 현실로 펼쳐진 사실앞에 너무도 감격하여 조선동포 누구나 목청껏 웨치던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그날에 우리 겨레가 터친 《조국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는 이 땅에 드디어 찾아온 해방에 대한 기쁨과 환희의 폭발인 동시에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의 분출이었다.

조국해방, 이것은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력 독립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항일의 불바다, 피어린 20성상을 풍찬로숙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침내 안아오신 민족재생의 새 아침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백 수십년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20세기가 열렸다.》고 알려진 종소리와 더불어 서방열강들이 《축하의 삼광》을 터칠 때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한쪽에 위치한 조선반도는 망국의 비운속에 빠져들고있었다.

20세기의 첫 설날 아침 75만 원의 국채연기를 간청해 이역의 거리를 헤맸던 조선봉건왕조, 조선을 강탈하기 위한 렬강들의 피비린 각축전으로 삼천리강토에 무겁게 드리웠던 참혹한 재앙의 먹구름, 이 땅을 삼키려는 일제의 침략의 마수.

오죽했으면 당시 서유럽의 한 관리가 조선을 가리켜 《대국들의 발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축구공》,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들의 먹이감》이라고 했겠는가.

나라는커녕 왕궁조차 지킬 힘이 없었기에 나중에는 섬나라오랑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었다.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된 우리 겨레는 온갖 굴욕과 학대, 착취와 약탈을 강요당했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1945. 10. 14.)

고 수백만명의 청장년들이 침략 전쟁터에 끌려다니고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려 참혹한 죽음을 강요당했다. 지어 자기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민족의 운명은 말그대로 칠성판에 올라있었다.

이 치욕과 수난, 비극을 가시고저 수많은 의사, 지사들이 애국의 선혈을 뿌리며 반일의 길에 나섰다. 의병도 일으키고 독립군도 무어 싸웠다. 3.1의 독립합성도 터쳤고 6.10만세시위도 벌였다. 국제보상운동도 하였고 큰 나라에 독립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도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했다. 탁월한 명수를 모시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삼천리강토는 인간생지옥으로 화하고 반만년의 역사를 창조

해온 조선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암담한 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반일성전을 선포하시고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었다.

당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대전을 선포하셨을 때 반일인민유격대와 일제와는 력량상, 무장장비상 대비조차 할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결연히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것인가. 불과 2~3년동안이면 손쉽게 결관을 벌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끝에 와서게 되

었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전진할을 멈추고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자자동판에서 18명의 대원들과 함께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을 두고 하신 교시이다.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의 그 나날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 쓰라린 아픔은 실로 끝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갖 창건된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남만으로, 동만에서 북만으로, 다시 북만에서 동만으로 이어가시던 원정의 길이며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 남페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어찌 이뿐만이랴. 항일의 그 나날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삼촌을 잃으시고 빨재산의 추도가속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전우들과 영리별해야 하였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남들 같으면 얼백번도 더 쓰러졌을 그 시련과 아픔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명활한 전법, 비범한 령군술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시고 싸움마다에 일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대마록주전투, 흥기하전투를 비롯한 대소전투들과 유인매복전법과 기습소량전, 동성서격전법, 일행천리전술, 망원전술을 비롯한 기묘한 유격전법과 전술들은 불세출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의 빛나는 모범

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여 일제와의 전면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주체25(1936)년 5월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여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항전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무장투쟁의 중심무대를 백두산지구으로 옮기고 점차 국내으로 확대하도록 하시었다.

우리 겨레가 조종의 산으로 떠받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국해방성전을 국내으로 확대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능히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드립없는 의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무두봉밀영, 선오산밀영, 간백산밀영, 지양개밀영, 이도강밀영, 리명수밀영, 청봉밀영을 비롯한 수많은 위성밀영들을 꾸리고 무장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가시였으며 북부조선일대의 백암, 풍산(당시), 후창, 후치령, 랑림, 부진, 신흥, 위린, 창성, 오가산지구와 중부조선일대의 덕천, 양덕, 안주, 평성, 구월산, 신평, 곡산, 토산, 판교, 태백산지구 그리고 남부조선일대의 지리산지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중요지대들에 비밀근거지들을 꾸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시었다.

전민항전으로 조국해방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업일이 이룩될수 있었다.

해방의 그해 11월 5일부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8월 15일전에 우리의 민족으로 찬연한 투쟁사를 가졌다면 그 중요한 폐지는 김일성장군의 투쟁에 드리지 아니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를 가졌다면 김일성장군을 첫손가락에 꼽지 아니할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도란에 빠졌던 우리 겨레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번영과 통성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그때로부터 장장 77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의 크나큰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한 민족의 구세주로 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고 계신다.

전일남

